



한국수력원자력(주) 조석 사장

[학력]

1981 서울대학교 외교학 학사
1997 미국 미주리주립대 경제학 석사
2007 경희대학교 경제학 박사

[주요경력]

2008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실 산업경제정책관
2009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장
2011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2013 지식경제부 제2차관
現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

23기의 원자력발전소와 35기의 수력발전소, 16기의 양수발전소
 외에 태양광 발전소 등을 운영하며 국내 전력의 약 30%를 생산하고 있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발전사, 한국수력원자력(주)

지난해 9월 새롭게 취임한 조석 사장을 만나 'Pride, again!' 잃어버린 자존심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한국수력원자력(주)의 계획을 들어 보았다.

지난해 원전납품 비리로 얼룩진 한수원의 대외적 이미지를 회복하고 내부결속을 다지기 위한 일환으로 조 사장은 취임 이후 원자력발전소는 물론, 양수와 수력발전소 등 발전소 현장을 꼼꼼히 다녔다. 조 사장은 “밤낮없이 휴일도 잊은 채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하고 있는 직원들이 대다수였으며, 하루빨리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고 직원들의 잃어버린 자존심을 세워주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다”고 말했다. 그 과정에서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직원들의 개혁 의지를 강하게 느낄 수 있었으며, 그러한 열망을 불씨 삼아 ‘한수원 3대 혁신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자력발전소 현장 초도 순시

더불어 “그동안의 혁신안들은 위에서 아래로 지시되는 하향식이었지만 3대 혁신운동은 전 직원이 참여해 아래로부터 올라가는, 자율적인 개혁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수원의 3대 혁신 운동은 조직, 인사, 문화를 큰 축으로 원전 비리의 원천을 일소하고, 안전 최우선의 경영 원칙을 확립하며,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인 혁신을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수원은 부품 설계부터 운영까지 단계별 혁신조직을 구성하였고 설계단계에서는 부품이 제대로 설계됐는지 판단하는 능력을 강화하고자 엔지니어링 부문을 확대하였다. 조 사장은 “구매단계에서는 공급자

관리 체제와 품질검증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구매사업단과 품질보증실의 역량과 기능을 확대했으며, 구매한 부품을 운영하는 단계에서의 인적 실수가 나오지 않도록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한수원 내부적으로 원자력분야의 특수성으로 인해 원자력발전을 경험했던 사람들끼리만 일을 해야 잘 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존재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 조 사장은 "작년부터 우수한 외부인재 영입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내년까지 본사 처·실장 핵심간부의 절반을 외부인사로, 이른바 '원자력 순혈주의'를 없애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에 영입한 외부 인재 5명 가운데 2명은 여성으로서 한수원 사상 최초의 여성 고위간부이다. 또한 직군간 폐쇄성을 타파하고자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직과 원전을 운영, 건설하는 기술직 간 소통이 되지 않았던 문제를 직군간 교차보직제도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한수원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200여명의 직원을 현장으로 배치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현장위주의 발전소 운영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조석 사장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 2회 원전본부 현장근무를 계획하고 이를 실천해 나갈 방침이다.



현장근무자들과 업무현안 협의

문화 혁신과 관련해서는 "가장 먼저 효율만 늘릴 것이 아니라 안전한 발전소 운영에 집중할 것이고, 내부 직원들의 의견조사결과를 토대로 선정한 10대 불건전 관행을 척결하는 조직문화 개선운동을 추진하는 등 조직문화를 바꾸는 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을 수 있도록 '칭찬하고 감사'하는 감사경영, 더 나아가 직원 스스로 문제를 찾아 해결할 수 있는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 사장은 한수원의 최우선 현안과제 및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전의 안전성과 잃어버린 국민 신뢰 회복을 다시 한 번 꼽았으며, 이와 관련 "강도 높은 경영혁신 활동을 통해 비리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고, 원전 안전성을 대폭 높이면서, 지속적인 혁신활동을 가속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Power Interview

조석 사장은 신년 경영화두로 ‘해현경장(解弦更張)’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올해는 정치와 경제 등 모든 제도에 대한 근대적인 개혁을 시도했던 갑오경장이 일어난 지 120년이 되는 해이며, 낡은 시스템을 바꾸고 새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던 선조처럼, 회사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며, 새로운 미래를 위해 혁신하는 한 해를 맞이하고자 한다”며 그 취지를 설명했다.

올해 전력수급 안정화를 위한 대응 전략으로는 “지난 8개월간 멈춰있던 원전 3기(신고리1·2, 신월성1호기)가 가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300만kW의 전력이 확보됐다”고 밝히며 “이와 더불어 ‘원전 특별관리대책’을 마련해 안정적인 원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비상대응체제 구축·운영, 고장정지유발 취약설비 점검강화, 원전가동상태 모니터링 강화, 경영간부 원전지역본부 담당제 등의 이행을 통해 원전의 고장정지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전 3기 재가동을 위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현장 시찰

경주사옥 건립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본사 신사옥의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지난해 9월말 시행했고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 157,142㎡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12층 규모로 건립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부지 정리공사가 완료되었고, 시공사까지 선정된 상태로, 2015년 말까지 차질없이 준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 사장은 끝으로 전기인들에게 “원자력발전소는 한수원 혼자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과 함께 운영하는 것이며, 이제 한수원은 새로운 변화의 모습으로 거듭나는 노력, 다시 해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모든 직원이 합심해 조직, 인사, 문화의 3대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하며 한수원의 신뢰 확보와 재도약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